

투어 번호
LKBHQXW2KN

기차로 세렌디브 발견하기 (8일)

8일 · 7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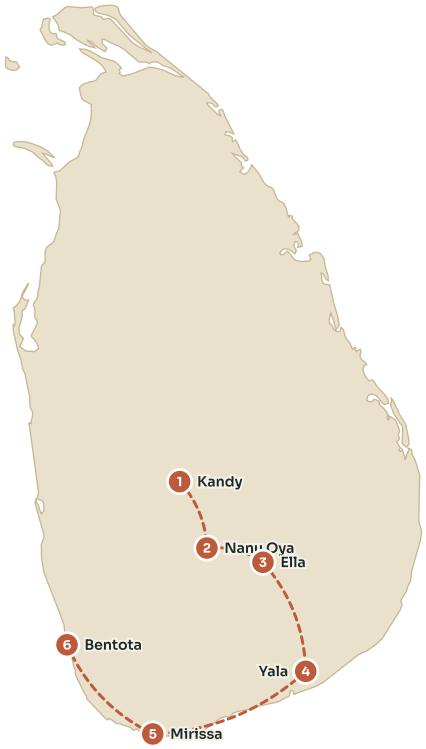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8일간의 투어는 콜롬보에서 시작하여 공항으로 돌아오며, 경치 좋은 기차 여행과 전용 도로 이동을 통해 스리랑카의 산악 지역과 남부 해안을 연결합니다. 캔디, 누와라 엘리야, 엘라 사이의 기차 구간은 차 농장과 안개 자욱한 산악 풍경을 지나가고, 이후 며칠은 얄라에서의 야생동물 사파리, 미리사와 벤토타의 해변 시간, 콜롬보의 도시 투어를 포함합니다.

여행객들은 스리랑카의 주요 명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캔디의 치아 사원, 식민지 시대의 누와라 엘리야, 엘라 주변의 하이킹 트레일과 전망대, 얄라 국립공원의 사파리, 미리사 앞바다의 고래 관찰, 그리고 콜롬보의 랜드마크와 쇼핑 거리를 마지막으로 보는 해변 휴식입니다.

투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Lakpura®의 전용 운전 기사 가이드와 함께 진행되며, 기차역, 호텔 및 관광지 사이의 이동, 운전 및 물류를 관리하여 일정을 관광, 산책 및 수상 활동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콜롬보 → 캔디

콜롬보 공항에 도착한 후,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콜롬보 포트까지 운전하여 캔디행 열차에 탑승하며, 이후 불치사를 방문하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콜롬보

열차 출발 전 남은 시간에 따라 포트 기차역에서 탑승하기 전에 콜롬보를 간단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Gihanud2001 · CC0

캔디행 열차 (콜롬보-캔디)

콜롬보에서 캔디까지의 기차 여행은 약 3~4시간이 소요되며, 편안한 좌석과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불치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 사찰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화려한 벽화가 그려진 홀, 조각된 기둥, 금박 입힌 불상들이 있습니다.

A.Savin · FAL



캔디 전통 공연

불 춤꾼, 칼 춤꾼, 캔디안 댄서들이 드럼 연주에 맞춰 공연하는 스리랑카 전통 무용을 선택적으로 한 시간 동안 관람할 수 있습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2 캔디 → 나누오야

체크아웃 후, 산악 지대를 가로지르는 열차를 타고 캔디에서 나누오야로 이동한 다음, 도로로 계속 이동하여 누와라엘리야를 둘러봅니다.

캔디-나누오야 열차

이 경치 좋은 열차 여행은 차 농장, 안개 낀 마을, 산, 숲, 폭포를 지나며 산악 지대로 향합니다.



누와라엘리야

과거 영국의 피서지였던 이곳에는 식민지풍 코티지, 저택, 맨션들과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 빅토리아 공원, 그레고리 호수가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3 나누오야 → 엘라

열차는 나누오야에서 엘라로 계속 이어지며, 여정 중 비교적 짧지만 인기 있는 구간으로, 이후 마을과 주변 명소를 둘러봅니다.

나누오야-엘라 열차

산, 폭포, 차밭, 안개 낀 작은 마을들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짧지만 종종 혼잡한 구간입니다.



엘라 마을

전통 오두막과 코티지 형태의 레스토랑과 티하우스가 있는 작은 관광 마을입니다.

Dan arndt · CC BY-SA 4.0



리틀 아담스 피크

엘라를 지나는 길에 차밭과 암석 지대를 걸어 오르면 도착하는 전망대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 브리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역사적인 철도 다리로, 건설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선로 설계로 유명한 이 역은 엘라 도보 코스의 종착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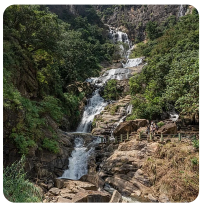
A.Savin · FAL

Day 4 엘라

엘라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며, 이른 아침 엘라 록 하이킹과 라바나 폭포 방문을 함께 즐깁니다.

엘라 록

도시락 아침 식사를 곁들여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로 오르는 세 시간짜리 아침 하이킹으로, 나무누쿨라 산맥, 리틀 아담스 피크, 반다라웰라 산맥, 푸나갈라 언덕, 나랑갈라, 엘라 협곡, 바둘라 기찻길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바나 폭포

스리랑카에서 가장 넓은 폭포 중 하나로, 높이는 약 25미터이며 타원형의 오목한 암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량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A.Savin · FAL

Day 5 엘라 → 얄라

체크아웃 후, 얄라로 이동하여 국립공원에서 저녁 사파리를 즐깁니다.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세 시간짜리 사파리로, 레오파드, 야생 물소, 늘보곰, 코끼리를 비롯한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6 얄라 → 미리사

체크아웃 후, 미리사로 이동하여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미리사 해변

웰리가마 만의 동쪽 끝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해변으로, 부드러운 모래가 야자수로 둘러싸인 한적한 섬 같은 느낌을 줍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7 미리사 → 벤토타

미리사에서 오전 고래 관찰 투어를 마친 후, 기차를 타고 벤토타로 이동하여 남은 하루를 해변에서 보냅니다.



미리사 고래 관찰

대왕고래, 향유고래, 긴수염고래를 만날 수 있는 다섯 시간짜리 투어로, 각 고래 종을 구분하는 법을 설명해주는 자연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Ji-Elle · CC BY-SA 3.0

미리사–벤토타 열차

이어지는 기차 여행에서는 여정 초반에 본 산악 지대와는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벤토타 해변

황금빛 모래와 야자수로 유명하며, 스노클링, 서핑, 다이빙, 수영, 제트스키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Vincent van Zeijst · CC BY-SA 3.0

Day 8 벤토타 → 콜롬보 → 공항

마지막 날에는 콜롬보 시내와 쇼핑 투어를 마친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콜롬보 시내 투어

구 등대, 구 국회의사당, 갈 페이스 호텔, 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박물관 등 수도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투어입니다.

Gihanud2001 · CC0

콜롬보 쇼핑

독립 광장과 레이스 코스 주변의 부티크 숍과 디자이너 매장을 둘러볼 시간으로, 갤러리 카페에서의 점심, 베어풋 갤러리, 스파 세일론 방문 등을 추천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